

〈명주기봉〉에 나타난 부부 화합의 조건*

- 현천린 부부를 중심으로

최수현**

<차 례>

1. 서론
2.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생활 양상
3. 부부 화합의 조건,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
4.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국문장편소설 〈명주기봉〉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에 대한 인식과 그 의미를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현우린과 함께 이 작품의 한 축을 담당할 정도로 비중이 큰 현천린은 부부 갈등을 심각하게 겪는 인물이다. 그와 그의 부인들의 관계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가 부부의 관계 양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천린의 부부 갈등의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한 탐색은 이 작품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현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의 관계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천린은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각각의 관계에서 재현된 혼인 시점, 동침 시기, 성(性)에 대한 태도, 주위 사람들의 부부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중요한 요인을 정서적 친밀감과 체격의 어울림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 글은 2016년도 한국고전연구학회 93차 학술대회에서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부부생활을 통해 본 부부 되기의 한 모습-〈명주기봉〉의 현천린·월성공주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명주기봉>, 부부 관계, 동침(同寢), 정서적 친밀감, 체격의 어울림

1. 서론

주지하다시피 가문의 창달과 번영의 방법을 고민하는 국문장편소설은 이를 남성의 관직 진출과 가문 구성원들의 혼인 및 부부 생활을 통해 드러낸다. 이처럼 가문 구성원들의 부부 생활은 서사에서 주요 이야기로 등장하는데, 일부다처제 상황에서 기질과 성품이 다른 각각의 인물들이 만나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화합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동시에 부부의 화합은 가문의 평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부 생활은 가문 어른들의 초미의 관심 대상이 되고는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문장편소설에 부부 생활이 가문 구성원에게 공유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문장편소설의 초기작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이 작품의 성(性)에 대해 관심을 재현하는 방식을 살핀 연구에서는 그 방식을 감추기, 엿보기, 스킵기로 파악했는데, 이 중 엿보기는 자녀나 손자 세대의 부부 생활을 서모가 엿본 후 이를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상황을 가리킨다.¹⁾ 또한 <현씨양옹쌍린기>를 대상으로 논의한 연구에서는 이 작품이 부부 생활을 사생활이 아니라 가문의 공사(公事)로 조명하는 것은 가족의 삶을 개인의 삶과 구분하지 않던 문화 관념의 소산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생활의 영역으로 닫혀 있던 부부 생활을 소설이라는 공공의 독서물을 통해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²⁾

1)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인문과학논총』 16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명주기봉>에도 자녀들의 혼인과 부부 생활은 주요 사건으로 서사화된다. 그런데 이 작품은 부부 간의 화합을 이루는 요인으로 여타의 국문 장편소설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서적 친밀감 못지않게 체격의 어울림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요한다. 이는 부부 간의 화합의 조건을 기질이나 정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당대 향유층들이 다채롭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씨양옹쌍린기> 연작의 2번째 작품인 <명주기봉>은 북송(北宋) 인종황제 시대를 배경으로, 현수문과 현경문 형제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현씨 가문 자녀들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을 겪는데, 그 중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이 겪는 갈등은 이 작품에 나타난 부부 화합의 조건에 대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현천린이 서사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와 그의 부인을 대상으로 부부 화합의 조건에 대해 작품이 보이는 태도는 이 작품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현천린은 현경문의 장자라는 점에서 가문 내에서 무게감이 큰 인물일 뿐더러, 현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의 서사는 전체 24권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1권부터 16권까지 비중 있게 서술된다.

그간 <명주기봉>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었다. 연작들과의 관련 양상, 창작 방식, 주요 갈등의 특징, 애정 형상 측면 등 다방면의 연구가 축적되어 이 작품을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³⁾

2)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학적 재배치-‘현경문-주소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10.

3)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

이 중 <명주기봉>에 나타난 애정 형상을 살핀 연구에서는 현천린의 부인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많은 월성공주와 그가 일으키는 갈등을 내외적 요인에 의해 빚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히 갈등을 지속시키는 내적요인을 성인의 풍모를 보이는 공주의 성격보다는 다혈질적이고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는 천린의 성격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천린의 애정은 감성적, 성애적인 면모를, 공주의 애정은 도의적, 감성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⁴⁾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에 대해 다른 연구에서도 현천린과 월성공주의 갈등은 혼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혼인 당사자와 기존 가족 구성원 간에도 빚어지고 있어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⁵⁾ 위의 논의들은 천린과 공주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외적 요인이 해결이 되어도 이들의 갈등이 지속되며, 갈등의 내적 요인이 부부의 성격 차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갈등 재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궁금증이 남는다. 이는 곧 부부 화합의 조건의 다른 면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명주기봉>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재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 작품이 부부 화합의 조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천린이 여러 부인들과 맺고 있는 부부 생활

식, 태학사, 2003;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용서대립담 연구: 여주인공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이나라,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최수현, 「<명주기봉> 이본 연구 - 고대본 <명주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4) 고은임(2010), 앞의 논문, 29~58쪽.

5) 이나라(2014), 앞의 논문, 43~48쪽.

의 양상을 혼인한 순서에 따라 혼인 시기, 동침 시기 및 성(性)에 대한 태도, 주변 인물들의 부부에 대한 인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⁶⁾

2.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생활 양상

1) 현천린과 설단아

<명주기봉>에서 현천린은 총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먼저 현천린과 설단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혼인 시기부터 살펴보자. 설단아는 천린과 처음 혼례를 올린 여성이나, 훗날 천린이 부마가 됨에 따라 우부인이 되는 인물이다. 천린은 11세에 첫 혼례를 올리는데 이는 조부 현택지의 성화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때 배우자가 되는 설단아는 12세로 소개되며, 이는 설단아 부친의 구혼에 의한 것으로 제시된다. 혼인 직후 현씨 가문 사람들에게 설단아는 아름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바라던 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천린의 짝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⁷⁾

다음으로는 동침(同寢)의 측면을 살펴보자. 혼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이들의 동침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첫 동침을 갖는 시기는 혼인 후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6) 논의의 대상은 선본으로 알려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24권 24책 <명주기봉>으로 한다.

7) “남후 부부 설시의 폐백을 바들시 신부의 교용율태 절세하여 범안은 만구칭선현대 존당구교와 숙당은 비소망이라 크게 놀나 스식지 아니코 하언을 슈용할 식” <명주기봉> 1권.

자리에 나아가니 원래 부친의 명을 지켜 지금까지 운우지정을 나눔이 없다가 이제 이별을 당하여 다시 모일 기약이 없는 고로 저의 한을 풀고 자신의 신의를 온전히 하고자 하여 원앙지락을 이루었다. 천린이 비록 12세로 어리나 모든 일에 노성함으로 홀로 부부 행락에 무심하겠는가. 그 친밀함이 비길 대 없었으며 설씨의 유정함은 천린보다 세 배나 더 하였다. ……(중략)…… 장부의 정을 돋우며 뜻을 맞추니 천린이 처음으로 부부의 즐거운 일을 깨달으니⁸⁾

어린 나이에 올린 혼인이기 때문에 천린은 부친 현경문에게 몸가짐을 조심히 가질 것을 요구받⁹⁾ 설단아의 이름다움에 끌리면서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의 동침은 천린이 부마에 간택되어 설단아가 이혼 당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자 이뤄진다. 이 시점은 천린이 12세, 설단아가 13세일 때인데, 위에서도 확인되듯이 천린은 부모 허락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동침을 하면서 이를 즐거운 일로 받아들이며, 설단아 역시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뿐더러 더 나아가 천린의 정을 돈을 정도로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갈등 측면을 살펴보자. 이들은 천린이 부마가 됨에 따라 갈등을 겪으며, 이 갈등은 설단아의 유배로 인해 장시간 지속된다. 월성공주로 인해 첫째부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설단아는 미혼주를 먹여 천린의 분별력을 떨어지게 만들어 천린으로 하여금 공주를 박대하

8) “침석의 나아가니 원래 부명을 직회여 지금 낭성의 친이 었다가 이제 니별을 당하여 모들 지속이 업슨고로 저의 한을 풀고 즈가의 신의를 온전코져하여 원앙지락을 일우니 사인이 비록 십이세 유년이나 빅식 노성하니 홀노 부부 행락이 무심하니오 전권친 밀혔미 비길대 업스니 설씨의 유정흔 신의게 세번 더은지라 ……(중략)…… 장부의 정을 도드며 뜻을 맞추니 싱이 처음으로 부부락을 씨다르미” <명주기봉> 2권.

9) “너의 형데 구상유취로 뼈 입장하니 거세의 쭈지름을 입을가 흐니 여등은 삼가 진중하여 몸을 조심하고 형실을 두터이 하여 가훈을 저바리지 말나” <명주기봉> 1권.

게 할뿐더러, 공주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를 시도하다 실패하며, 무고사를 행하려다 발각돼 유배를 가게 된다. 이들 갈등에서 흥미로운 점은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설단아를 대하는 천린의 태도이다. 10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설단아를 현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데려오고자 하는데 반해 천린은 그 개과(改過)를 믿지 못해 3년 후에야 데려오겠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천린은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라 형제들의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며 현경문의 장자로서의 입지를 세운 상황으로 이 일을 제외하고는 현부 어른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없다. 결국 이 갈등은 현부 어른들이 천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설단아를 바로 데려온 후, 그 개과 사실을 믿게 된 천린이 점점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현천린과 월성공주

월성공주는 현천린이 2번째로 혼인을 치른 인물로, 이 혼인을 통해 천린은 설단아와 이혼하고 공주를 첫째부인으로 맞이하게 된다. 먼저 이들의 혼인 시기를 살펴보자. 이들의 혼인은 설단아와 혼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천린이 12세 때, 공주가 9세 때 이뤄진다. 천린이 설단아와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마가 된 것은 월명도사에게 신물인 명주의 짝이 부마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황제가 명주의 주인이 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의 인연을 천연(天緣)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들의 관계를 동침(同寢)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는 내외적 요인에 의해 갈등을 겪는다. 외적으로는 공주의 하가(下嫁)로 인해 이혼 당한 설단아가 별이는 모해로, 내적으로는 강압적인 혼인에 대한 반발과 동침(同寢)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진다. 그런데 설단아의 모해가 발각돼 외적 요인이 사라지고

천린이 공주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강압적인 혼인에 대한 반발이 없어진 후에도 이들의 갈등은 지난하게 지속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난한 갈등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 동침을 둘러싼 두 사람의 태도를 알아보자.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의 동침은 혼인 후 5년이 지나 이뤄지며, 그나마 동침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그로부터도 2~3년이 지나서이다. 이처럼 동침이 끊임없이 지연된 것은 두 사람의 동침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혼인 초에 동침이 지연된 것은 공주가 어리다는 점과 혼인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12세의 설단아도 어린 나이로 생각해 동침을 미루게 했던 현부에서는 9세인 공주와의 동침을 권하지 않으며, 천린은 원치 않게 부마로 간택된 데에 대한 반발로 공주를 냉대한다. 게다가 두 사람의 혼인이 1년이 지났을 무렵에는 천린이 그간 공주를 박대한 사실이 알려져 황제가 공주를 곁에 불러들이고 천린에게서 부마 관작을 거두면서 동침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¹⁰⁾

그런데 이처럼 동침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동침을 둘러싸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보이는 태도이다. 강압적인 혼인에 대한 반발과 설단아의 모해로 인해 현천린이 공주를 냉대하고 핍박하는 상황과 별도로 두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공주의 태도를 살펴보면, 그녀는 혼인 직후부터 동침이 이뤄지기 전까지 일관되게 천린을 두려운 존재로 여기며 침묵으로 반응한다. 서사에서 공주가 천린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데, 그 이유를 서술하는 공주가 곁에 있을 때 태자나 광평왕 같은 오빠들 이외의 다른 남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¹⁾ 이후

10) “천린의 월성도위 관면을 삭히고 공주를 대너로 드러 짐의 슬하의 종신케하라” <명주기봉> 4권.

천린의 꺾박이 물리적인 폭력을 동반하자 공주의 경직된 모습은 한층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연적을 부수거나 자신에게 반발한 궁녀의 머리를 베는 천린의 모습을 본 공주가 그에게 두려움을 보다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¹²⁾

이에 반해 천린은 공주를 냉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동침에 대해서는 부부 간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때문에 지나치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공주를 두고 천린은 자신과 공주의 관계가 일반적인 ‘부부’가 아닌 ‘빈주(賓主)’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게다가 천린은 설단아가 보여준 교태 있고 온순했던 모습과 비교해, 공주가 자신을 낮설어하는 모습을 의아해하며 풍정을 드러낼 수 없음에 대해 못 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다.¹³⁾

이처럼 두 사람의 동침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명주기봉>은 서사에 긴장과 이완을 불러 넣는데, 공주가 꺾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들이 재회하게 되는 대목은 그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꺾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단아가 벌인 모해로 인해 독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게 된 공주를 천린이 간호하면서 이들은 재회하는데, 이 재회 역시 동침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이 시점은 혼인한 지 3년이 지난 때로, 천린

11) “평싱 깃흔 궁의 즈라 데와 태즈 형데 밧근 남즈로 상점흐미 업다가 부마의 강엄흔 괴운을 대혀여 셔의흐기 심흔지라 슈식과 두려오를 썩여” <명주기봉> 2권.

12) 월성공주가 현천린과의 관계에서 갖는 두려움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월성공주가 보이는 두려움이 현천린이 미혼주에 빠져 있을 때 벌인 광거가 결코 잊혀지 않는 두려움의 근원이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나라(2014), 앞의 논문, 47쪽.) 이 글에서는 월성공주가 현천린의 광적인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혼인 직후부터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보며, 월성공주가 현천린과의 관계에서 처음부터 두려움의 정서를 보였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13) “부미 어려서부터 설시의 교용함티혀 드드라이 승순흔는 거동을 익게 보왔거늘 저 공주의 닝담하며 공경흐미 엄흔 존빈 궂터여” <명주기봉> 2권.

은 여전히 동침하고 싶어 하는 데 비해, 공주는 천린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천린은 공주의 흰 피부와 가는 손 모양을 곱다고 생각하며 체향을 맡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며¹⁴⁾ 스스로 이런 자신의 모습을 짝사랑이라고 판단하는¹⁵⁾ 반면, 공주는 자신을 지성으로 간호하는 천린을 보고도 심경의 변화를 느끼지 않으며, 천린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¹⁶⁾

이 같은 태도는 첫 동침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들의 동침은 혼인 후 5년이 지나서 이뤄지는데, 이 역시 공주의 반발로 3차례나 실패한 후 이뤄진다.

○ 상궁을 불러 말하기를 “잠깐 쉬려고 하는데 촛불이 보기가 싫구나. 그대는 사이를 적은 금장(錦帳)으로 가리도록 하계나.” 부마가 천천히 말하기를 “공주께서 사이에 금장을 치는 것은 불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보기를 싫어해서로군요.”¹⁷⁾

○ 부마의 손이 닿으면 놀라기를 나무가시가 닿은 것과 같이하고 두려워하기를 악호를 대하듯 하나 무례히 물리치거나 초독스럽게 떨치지 못하고 지난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송구해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져¹⁸⁾

14) “옥결 갖튼 피부와 삭송갖튼 섬쉬 괴묘호여 ……(중략)…… 천향이 분비호여 코의 뵈이고 광취 요요호여 눈의 영 썸니” <명주기봉> 5권.

15) “저 공쥬 비록 아릅다오미 철부성네나 임의 인연이 박호여 천니를 즈음친듯호거늘 내 이대도록 스럼호리오 벽스랑의 외즐김 갖트여” <명주기봉> 8권.

16) “공쥬 지극히 온순흔 뜻의 못는 말을 아니 대답지 못호여 입을 움죽이고져호나 혀 돕지 아닌논지라” <명주기봉> 5권.

17) “상궁을 불너 곱오대 잠간 쉬고져호대 촛불 보기 실흔지라 그대는 스이의 적은 금장을 가리오라” <명주기봉> 9권.

18) “저의 손이 넘흔죽 놀나오미 형극 갖고 두리오미 악호와 갖트나 무례히 물리치며 초독히 떨치지 못호대 석스를 싱각호여 심골이 송구호니 옥면의 향환이 썸러져” <명주

○ “공주께서 이미 정당에 문안을 마치고 계시는 것일 텐데 어제 오늘 갖 들어온 신부가 아니거늘 어찌 예복을 입은 채로 앉아 계십니까?”¹⁹⁾

<명주기봉>은 두 사람이 동침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닌 생각 역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위의 예문은 천린의 동침 시도를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공주의 반응과 관련한 대목이다. 혼인 직후부터 천린을 낯선 사람 같다고 여겼던 공주는 치독(置毒) 사건으로 아프던 자신을 지극 정성으로 간호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지에 적어 보낸 천린을 여전히 두려워한다. 때문에 천린이 아프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현부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에 놓이자, 공주는 천린과의 사이에 금장(錦帳)을 치며, 예복을 벗지 않고, 울거나 혼절함으로써 동침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천린은 이러한 공주의 태도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더욱 강압적으로 동침을 시도한다. 아름답다고 생각한 공주를 보며 동침을 하고 싶어 하는 천린은 공주가 부부 사이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동침을 거부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²⁰⁾

그런데 이 같은 공주의 반응은 상궁들에게조차 과한 행동으로 여겨져 그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명주기봉>에서 공주 곁을 늘 지키는 이로는 이상궁, 설상궁, 위보모가 있는데, 이중 이상궁과 설상궁은 황제나 현부 인물들에게 사리분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들으며 신임을

기봉> 9권.

19) “옥궐 임의 정당환경을 과하여 겨실진대 어제 오늘 곳 드러오신 신부 아니어늘 엇지례복을 입은척 안겨져시오” <명주기봉> 9권.

20) “도위 정칙 노왓 전일은 나히 어려 부부호합이 그 썩 아닌고로 싱이 오히려 앓기미 잇거니와 이제 피척 년기 츄고 군명을 밧즈와 복합히미 잇거늘 무스일 가부를 거절코져 하시뇨 ……(중략)…… 그 천향이 품비혀 몸의 품기고 그 픽되 요요혀여 눈의 어리물 보미 의시 착급혀거늘” <명주기봉> 9권.

받는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조차도 공주가 수년간 동침을 거부하며 경직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두고 의아해하며 이처럼 고집을 세우는 것이 장차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동을 바꿀 것을 권유하는 말을 건넨 정도이기 때문이다.²¹⁾ 결국 천린과 공주의 동침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는 천린의 위협과 완력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때문에 첫 동침은 천린의 의지는 있을지언정, 공주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동침이 있는 후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동침이 자연스러운 부부 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까지는 이후로도 2~3년의 시간이 더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여준다. 우선 공주는 더 이상 천린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첫 동침 직후부터 천린과 같이 있는 공주의 심정을 묘사할 때 두려움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²²⁾ 강압적으로 동침이 연이어 이뤄진 후 공주는 병을 앓으며, 급기야 태아를 사산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주는 자신을 간호하는 천린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대답을 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공주는 자신을 돌보느라 초췌해진 천린을 보며 젊기 때문에 자손을 걱정할 때가 아님에도 슬퍼하는 것이 지나치며 식음을 전폐하고 온 나머지 강한 기운이 줄어들었다고 여기는데²³⁾, 이러한 판단은 공주가 천린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천린과 눈이 마주친 순간 공

21) “상궁이 나죽이 곁오대 전일 부마 노야의 과게 만호시나 당창지시혀여는 군즈 유흥 이 늦부미 업거늘 옥취 너모 고집혀샤 태위 손상혀시고 ……(중략)…… 장창 유익지 아닐가 헉는이다” <명주기봉> 9권.

22) 이는 첫 동침 직후 연달아 이어진 다음날 동침 상황을 묘사할 때부터 발견되는 점이다.

23) “부마의 초창혀는 소리를 듯고 그 석반 폐혀를 보미 ……(중략)…… 시년이 최소혀여 원네 머릿거늘 ……(중략)…… 모진 기운이 엇지 저러툃 소삭혀엇난고” <명주기봉> 13권.

주는 시선을 내리지만 그 직후 천린이 옷을 벗고 곁에 누우며 편히 자기를 권할 때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 대답을 한다.²⁴⁾ 이는 독약을 먹어 사경을 헤매던 공주를 천린이 간호할 때, 공주가 천린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고 낯선 이를 대하듯이 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후 공주는 천린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 뿐더러 스스로 의견을 내놓는 등 자연스러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신의 입궐을 막는 천린에게 시누이 현희염이 친정인 현부에 와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들며 입궐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내세울 정도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며, 동침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부끄러워할지언정 두려워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²⁵⁾

이 같은 변화는 천린에게서도 역시 발견된다. 완력으로 이뤄졌던 첫 동침의 결과로 공주가 아팠으며, 그 때 잉태되었던 아이가 사산됨에 따라 천린이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 때문이다. 천린은 사산 한 공주를 간호하면서도 그 모습에 반해 동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나 곧 태아의 사산이나 공주의 아픔을 자신의 탓이라 여겨 뉘우치며 차라리 4~5년을 기다려 동침을 했었다라면 하는 후회의 마음을 비추고 그 이후의 동침을 늦추기 때문이다.²⁶⁾ 게다가 첫 동침 이후 2~3년이 지나 이뤄진 다음의 동침으로

24) “부미 웃오슬 버셔 후리치고 공쥬를 향하여 왈 상풍이 습인하고 한벼 위치하니 옥쥬의 귀퉁이 상하실가 흐느니 평안이 혈속호소셔 공쥬 유유 대왈 공쥬 침금을 찾지 아니시니 첩이 었지 몬져 즈기를 구하리잇고” <명주기봉> 13권.

25) “공쥬 답지 말고즈흐나 쏘흔 췌계를 어들가 하야 강인화답하니 부메 그 응디흐는 바를 드르니 오히려 즈가의 싱각홀 빅 만흔지라 저 가튼 성녀현부와 금슬 종고의 락〃흔 낙이 이실가 흐엿더니 만심의 깃분 쫓슬 억제치 못하여 그 옥쥬를 잡고 광미의 화귀 어리어 건권흐미 비길디 업스니 공쥬 크게 슈습불안하여더라” <명주기봉> 16권.

26) “부미 그 성염미모를 대하미 은정이 산비희박흐나 도라 싱각건대 금번 그 스침이 위태하던 거동을 싱각하미 전일 삼가지 못흔 일이 빅번 뉘우브고 열번이다로운지라 적

아들이 태어났을 때 천린은 지난 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며, 이는 공주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제시된다.²⁷⁾

마지막으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자.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게 나타난다. 사실 천린이 공주와 혼인한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평대사에 의해 이들의 인연이 천연(天緣)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주위 인물들은 두 사람이 기질이나 신체적 조건이 다름으로 인해 이들이 어울리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혼례 날 광평왕은 ‘난초 같은 기질의 공주가 산악 같은 천린을 감당치 못할 것’을 걱정하며, 서술자는 ‘천린의 풍채가 좋으며 기운이 범 같은 데 반해 공주가 그렇지 못해 어울리는 부부이나 기질이나 신체 조건이 다름’을 강조한다.²⁸⁾

이러한 시각은 첫 동침이 있는 후 공주가 병을 앓는 상황에서 더욱 강해진다. 강압적인 동침이 연이어 이뤄지면서 공주가 아프게 된 상황은 현 부뿐 아니라 쫓겨갈까봐 알려지는데, 태자와 광평왕은 ‘공주가 본래 약한 기질인데 반해 천린이 호걸스런 기질을 지녀 생긴 일’로 치부하며, 황제는 현 경문에게 ‘공주의 기질이 맑은데 비해 천린의 자질이 준결이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²⁹⁾ 이는 공주가 사산했을 때에도 거

은 거슬 춤지 못하여 큰모홀 어저러일비 업스니 츠라리 스오년을 각거하여 그 괴운이 저기 충실함을 기다려 빅년동주를 계교함미 은정을 절츠하여 정심을 굳게하나 소식 뜻 갖지 못함을 한호고” <명주기봉> 13권.

27) “부배 석스를 드노하 스죄함미 금일 처음이라 공췌 불복하나 공췌 놀호여 뒤왈 왕스틀 날막를 비 업고 첩은 인식막황호여 돈연이 〃즈미 잇거늘 군휘 오히려 유심함미 잇도소이다” <명주기봉> 16권.

28) “광평왕이 쇼왈 군의 괴운이 산악 갖고 위풍이 밍호 갖거늘 아미 월성은 지란 갖튼 괴질이라 능히 군의 호풍을 감당치 못할가 두리로라” <명주기봉> 2권; “부미 …… (중략)… 신장이 격대하며 낭비다슬호여 풍운을 제회호는 룡고고 공산의 파람호는 범 갖트여 그 명모염미는 진췌 공췌로 더브러 일대 낭필이오 췌슈 부뷔로되 그 강위호고 장성호는 가히 내도호지라” <명주기봉> 2권.

듬 확인되는데, 현경문은 부친 현택지, 형 현수문 등이 모인 자리에서 공주의 약한 기질을 볼 때 천린과 어울리는 짝이 아니며 두 사람이 강약이 너무 달라 부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을 거침없이 내비치며, 이는 주위에 있던 이들에게 반박을 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³⁰⁾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천린과 공주가 부부 생활을 원만히 하게 되고 자녀를 출산함에 따라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대신 현택지와 장태부인의 수연(壽宴)에서 이들의 관계를 서술자가 좋은 배필이라 평가하는 것을 통해 시선이 바뀌었음이 확인된다.³¹⁾

3) 현천린과 조소저

현천린과 세 번째로 혼인하는 인물은 조소저로, 그녀는 혼인 후 현천린의 좌부인이 된다. 먼저 이들의 혼인 시점부터 살펴보자. 이 혼인은 천린의 배우자가 비어있던 시기에 이뤄진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천린에게 박대 받은 사실이 알려져 공주가 궂로 들어가고 황제가 부마 관작을 환수한 후에도 설단이는 공주에 대한 모해를 그치지 않는다. 결국 공주에게 독약을 먹고 무고사를 벌이려던 일이 발각되면서 설단아가 유배 가는 상황에 처하자 황제는 천린의 빈 아내자리를 위해 황족 숙흥군의 누이인 조소저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면서 이들의 혼인이 이뤄진다.

조소저는 천린과 겪는 갈등이 없으며 월성공주나 설단이에 비해 <명주

29) “태조와 광평왕이 함소 주왕 월성까지 본대 질약다병허거늘 턴넌은 응호결식라다” <명주기봉> 10권; “상이 우으시고 이늘 도회 후 진공을 대허샤 웃고 글으샤대 월성 허이 괴질이 너모 호연이 몹아 진턱 저그물 짐이 즈못 두리거늘 턴린의 풍뉴준글이 그 격슈 아난가 시븐지라” <명주기봉> 10권.

30) “진공이 잠소 대왈 ……(중략)…… 다만 공주의 질약다병허미 으즈로 관관헌 짝이 아니오 강약이 너도허여 턴아로 더브러 부뷔라허미 가치 아니대” <명주기봉> 13권.

31) “부〳의 용광이 상하치 아니코 품복이 층등치 아녀 일쌍 가위로되” <명주기봉> 18권.

기봉>에서 비중이 적은 인물이다. 그러나 조소저와 천린의 관계에 대한 주위 인물들의 평가로 인해 이들의 혼인은 주목을 요한다.

좌우에서 보건대 용모가 수려하고 풍채가 늙름하며 그 얼굴빛이 비록 옥결같이 희지는 못하나 두 눈의 정기가 밝고 두 뺨 아래가 풍만하며 높은 코가 그윽하고 큰 입이 복이 있으며 처진 귓불이 어깨 위에 닿아있으며 이마가 나와 있으나 미간이 흰칠하고 눈이 깊으나 정기가 당당하며 얼굴이 길지만 턱이 둥그스름하여 가히 다남자 다복의 상이요, 키가 육척이 넘고 허리가 퍼지며 팔이 길고 손이 굵고 두 어깨가 높아 태산이 서 있는 듯하니 마음이 넓고 복되어 도리어 좋아보였다. 주위에서 연달아 월궁을 구경하여 눈이 무산에 있다가 이 신부의 장대한 거동을 보고 다 목연하였는데³²⁾

조소저는 시아버지 현경문을 비롯한 현부 구성원으로부터 천린에게 어울리는 짝으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위의 예문은 혼인 날 조소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그녀는 여성스러운 외양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장한 장부 같은 체격을 갖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조소저는 신장이 육척이 넘을 정도로 건장한 풍채를 지녔으며 긴 팔과 굵은 손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를 본 현경문은 조소저를 다남자 다복할 관상이라 평가하며 천린의 부인이 될 만하다고 여기고 서로 어울리는 부부라는 판단을 보인다.³³⁾

32) “좌위 보건대 용모 슈려호고 풍신이 언건호여 그 닷빛치 비록 옥결긋치 희지 못하나 두 눈의 정기 명낭호고 낭협지히 풍만호며 늙흔 코히 유긋호고 큰 입이 복저워 처진 귀불 엇기 우히 대혀시며 니믹 내미니 미간이 흰출호고 눈이 깊흐나 정기 당당호며 얼굴이 가나 턱이 둥구러 가히 다남즈 다복지상이오 키커 육척이 넘고 허리 퍼지며 팔이 길고 손이 굵고 두 어깨 늙하 태산이 선듯흐니 어워츠고 복되어 도로혀 조아피는지라 좌위 연호여 월궁을 구경호여 눈이 무산의 잇다가 이 신부의 장대호 거동을 보고 다 목연호대” <명주기봉> 6권.

33) “신부의 유덕 확실호 거동이 짐춧 으즈의 내죄 되염죽호여 장부의 적거부위 되염죽

이러한 판단은 이들의 동침 시점에도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천린은 조소저와 혼인 후에도 공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동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동침도 혼인 직후 일어나지 않는다. 동침이 이루어진 시점은 공주가 천린의 강압으로 동침을 가진 후 아프게 된 때이다. 공주의 아픈 이유가 강압적으로 이뤄진 동침임을 파악한 현경문이 내놓은 방안이 다름 아닌 천린을 조소저의 숙소로 보내 그녀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⁴⁾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 옳았음은 동침을 갖는 당사자의 태도에서도 재차 확인된다. 인물의 비중 상 동침을 두고 조소저의 언급이나 감정 상태가 자세히 묘사되지는 않는데, 적어도 조소저는 공주처럼 동침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더불어 천린은 조소저와의 동침을 앞두고 그녀에게 열협군자의 풍모가 있다 여겨 기뻐하며, 동침 후에는 그 기세가 흥만하고 씩씩해 금슬이 좋았다 생각하며, 이를 두고 부친이 헤아린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짝이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³⁵⁾

4) 현천린과 강양공주

천린이 마지막으로 혼인하는 인물은 강양공주인데, 그녀는 적장 우길

하다” <명주기봉> 6권.

34) “부마를 계측하여 조시의 성혼 스오지의 박명이 심허막 군즈의 유신히 덕이 아니오 즉금 공췌 병 중허니 추후는 침쇼를 전일이 조시 숙소의 허라 불연즉 중히 다스리리라” <명주기봉> 10권.

35) “비로소 조시 보니 조시 의복을 소담이 허고 축하의 안짓는 거동이 어워치고 숙연하여 비록 염염이 고은 빛춘 업스나 활연상쾌하여 정히 열협군즈의 풍이 이시니 도위 가장 심복허대 ……(중략)… 부미 그 혜순유덕허 위인을 진중하여 금슬이 화명허고 조시 확실 흥장하여 진짓 공의 헤아린 바와 궂터여 적슈 부뷔러라” <명주기봉> 10권.

의 딸로 혼인 후 천린의 빈실이 되었다 훗날 숙빈이 된다. 강양공주는 설 단이나 월성공주에 비해 비중이 적은 인물이나 성(性)에 대한 태도를 엿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혼인 시점을 알아보자. 강양공주와 천린의 관계는 혼인 이후보다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주로 서술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강양공주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전쟁에서 만난 천린과 스스로의 의지로 혼인을 이루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부친 우길의 반란을 진압하러 온 천린과 대적 하던 중 오히려 잡힌 강양공주는 항복과 동시에 청혼을 하는데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천린과 혼인할 의지를 지닌 강양공주는 이후 남장을 하고 천린이 전쟁터에서 식량난을 겪을 때 이를 지원하며, 천린을 비롯한 현부 인물들이 역모를 일으킨 것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이 일이 음모임을 밝혀주는 등 끊임없이 도움을 줘 천린이 20세가 되었을 때 빈실이 되기에 성공한다. 이처럼 적극적인 혼인의 의지로 강양공주는 현부에 들어오는데, 부인이 아닌 빈실의 지위가 되는 것은 그녀가 적장의 딸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는 동침(同寢)과 성(性)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자. 그런데 이처럼 혼인을 하고 싶어 하던 강양공주는 막상 혼인 후, 천린과의 동침을 원하지 않은 채 오로지 문학을 강론하며 세월을 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강양공주와 천린은 동침을 하나, 비중 상 두 사람의 심리는 언급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 흥미로운 지점은 강양공주가 동침이 있기 전 앵혈(驚血)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여성의 순결을 상징하는 징표인 앵혈은 대개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 팔에 새겨지는 점이다. 그런데 변방에서 자란 강양공주는 이러한 풍속을 익히지 못해 앵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에게 없는 앵혈의 의미를 천린과의 혼인 후 알게 되면서 현부 어른들을 통해 동침 전 앵혈을 부여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3. 부부 화합의 조건,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

<명주기봉>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생활을 통해 이 작품의 부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현천린의 부부 생활을 통해 부부 간의 화합을 위해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우선 부부 관계에서 체격의 어울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부터 알아보자. 이 작품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를 신체의 조화로 바라본다. 현부 인물들은 며느리가 들어올 때마다 끊임없이 평가를 하는데, 평가의 기준은 미추(美醜)와 덕성뿐 아니라 배우자와 신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천린의 배우자 중 어울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는 조소저이며, 월성공주와 설단아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설단아가 덕성이 부족해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월성공주는 체격이 달라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명주기봉>은 일광대사와 신물을 통해 천린과 공주의 인연을 천연(天緣)이라고 설명한다. 때문에 황제는 설단아를 이혼시키면서까지 공주와 천린을 혼인 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달리 혼인 직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를 두고 주위 인물들을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거듭 내린다. 이는 혼인을 할 무렵 공주가 어려 신체의 발육이 천린과 어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부의 장손인 현웅린이 12세에 10세의 사마영주와 혼인을 하거나, 천린이 11세에 12세의 설단아와 혼인을 했을 때에는 사마영주나 설단아에게서 체격을 두고 배우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설단아는 13세에 천린과 동침을 하는데, 이때의 그녀는 성숙한 여성으로 묘사된

다. 그런데 <명주기봉>에서 유독 월성공주만이 체격이 천린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처럼 공주의 기질이 약하며 맑아 건장한 체격을 지닌 천린에게 좋은 배필이 아니라는 평가는 공주가 건장한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반복된다.

기실 황실과의 혼인은 가문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때문에 국문장편소설에서 중심가문의 여성이 태자비로, 남성이 부마로 설정되는 일은 종종 나타나며, 이는 가문의 번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준다. <명주기봉>에서 현부 역시 월성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일을 가문의 경사로 여기며, 혼인 직후 천린이 궐에 문안을 다녀왔을 때에는 주고받은 대화를 일일이 물어보며 성은에 감사해하는 모습을 보인다.³⁶⁾ 때문에 황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현부 인물들과 두 사람의 인연을 천연(天緣)이라 여기는 황실 인물들이 천린과 공주를 두고 어울리지 않는 관계로 판단하며 더 나아가 이를 발화하는 부분은 이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덕성의 어울림을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으로 평가한다. 부덕(婦德)을 갖춘 여성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에 가문구성원들은 혼인 대상자와 잘 어울린다는 판단을, 그렇지 못한 여성이 들어올 경우 혼인 대상자의 성품에 비추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공주를 두고 덕성뿐만 아니라 체격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은 이상적 부부의 모습에 대한 판단을 보다 현실화, 구체화해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36) “일개 슈말을 못고 텃총이 권권히시를 드르미 성은을 감굴허더라” 2권.

37) 신체적 조건을 부부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점은 조선시대 풍속에서도 발견된다. “전통 혼례에서는 혼담이 오고가면 ‘간선’이라 하여 신부감을 선보는 풍속이 있었는데, 신부의 관상을 보고자 한 것은 여성의 상에 따라 관계한 남성의 건강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다산의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성희, 『조선

이처럼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으로 체격의 조화를 중시한 것은 작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송(宋)대나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체격의 조화가 자녀의 출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가문의 번영과 영달을 보여주는 국문장편소설에서 후사를 잇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명주기봉>에서 신체적 조건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린의 부부에게서도 확인된다. 천린이 첫 아들을 얻는 것은 20세가 갓 지났을 무렵인데, 천린이 현경문의 장자(長子)라는 점이나, 그의 나이 11세에는 설단아와, 12세에는 월성공주와, 14세에는 조소저와 혼인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매우 늦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천린이 사촌 현용린의 아들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자신의 후사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명주기봉>이 현천린이 17세에 월성공주와 동침했을 때, 임신되었던 태아를 사산(死産)으로 처리하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문장편소설에서 악인형 여성들이 남편의 애정을 얻거나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출산한 아이를 뒤바꾸는 설정은 종종 찾아지나 선인형 인물의 태아가 사산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서 보았듯이 월성공주는 강압적인 동침이 있던 직후 병을 앓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잉태되었던 아이를 사산(死産)한다. 이를 두고 <명주기봉>은 천린의 꿈에 선관이 나타나 사산이 천린이 어려서부터 ‘강위(強威)’ 했으며, 무고히 궁녀를 살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하게 한다.³⁸⁾ 그러나 이와 별도로 현경문이나 황제는 두 사람의 신체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현실적으로 아이의 사산은 선관의 설명처럼 궁녀

의 섹슈얼리티: 개정판』, 가람기획, 2009, 37쪽.)

38) “군이 소시로봇혀 강위되고야 무죄호 비즈를 춤호고 술싱을 도히 너기노고로 중궁이 일죽 티이지 못호엿더니” 16권.

를 살인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라기보다는 공주의 신체적 약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체격의 조화나 조건이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천린과 그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의 수에서도 확인된다. 현부 인물들로부터 가장 잘 어울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조소저는 6자 3녀를 두는 반면, 월성공주는 2자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주기봉>이 천린과 그의 배우자들을 통해 체격의 조화가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중요 요인이라는 입장을 보여준 지점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후사 잇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작품에 실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위해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알아보자. 이 작품은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이 몹시 중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는데, 특히 이를 동침(同寢)이라는 사건을 통해 보여준다. 국문장편소설에서 부부 간의 동침을 거부하는 여성은 종종 발견된다. <성현공숙렬기>의 효장공주,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 <명주기봉>의 현월염 등이 그러한데,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제시된다. <성현공숙렬기>에서 이미 소씨와 혼인했던 임세린과 부부가 된 효장공주는 세린이 자신을 후한(後漢) 때 송홍(宋弘)을 연모한 호양공주(湖陽公主)에 비기며 음란한 여인으로 여기자 동침을 거부한다.³⁹⁾ 또 <옥원재합기연>의 이현영은 장인을 인정하지 않는 남편 소세경에게 항거하기 위해 성적 자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써⁴⁰⁾, <명주기봉>의 현월염은 호색한 남편 이기현이 창기와 어울리며 군자답지 못한

39)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 27, 동양고전학회, 2007, 15~19쪽.

40)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0, 87쪽.

행동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아 동침을 거부한다.

이에 비해 <명주기봉>에 나타난 월성공주의 동침 거부는 심리적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제시되어 차이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현월염과 같이 나름의 명분이 있어 동침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남편과의 동침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모습은 이 작품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문장편소설에서도 발견된다.⁴¹⁾ 물론 공주가 천린과의 동침을 거부하는 이유는 천린이 공주에게 보여준 냉대와 핍박 때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리적 폭력이 있기 전부터 공주는 천린과의 동침을 거부하며 천린을 두려워한다.⁴²⁾ <명주기봉>에서 공주는 부덕(婦德)뿐 아니라 성인의 품모를 갖춘 인물로 평가받을 정도로 작중 내에서 뛰어난 인물로 제시된다.⁴³⁾ 7세에 제자백가(諸子百家)에 능통해 태자와 광평왕이 모르는 곳을 해석하기도 하며,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국가의 대소사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 황제로부터 아낌을 받을 정도이며⁴⁴⁾, 자신을 죽이려한 설단아를 용서하고 유배

41) 다만 이러한 여성들의 태도는 주로 서사에서 선한 성품이라고 규정지어진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며, 남성에 대해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 악한 성품으로 규정지어진 여성들의 경우에는 부끄러워하는 모습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42) 이 글에서는 공주가 천린에게 갖는 두려움이 물리적 폭력이 있기 전부터 있어왔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천린이 갈등 상황에서 보여준 물리적 폭력이 공주가 그에 대해 지닌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주가 지닌 두려움이 물리적 폭력에만 의한 것이라면 물리적 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 강압적인 동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주가 천린에 대해 갖는 두려움의 정서가 기술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서사에서는 동침과 동시에 두려움에 대한 감정 서술이 사라지고 있어 두려움의 근본이 물리적 폭력 이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 것이다.

43) 월성공주가 성인의 품모를 갖추었으며 작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 (고은임(2010), 앞의 논문, 40쪽.)

44) “년급 칠세의 제자백가를 통통히여 태자와 광평왕이 미처 헤치지 못하는 곳을 공취히석히대 현현이 아는 양히여 공과하는 뜻이 업셔 ……(중략) …… 국가의 대소사를 혹 걸치 못히시뵈 스스로 아는 체히지 아니대 즈연 신성히를 감초지 못히니 상이 크

에서 풀려나게 할 정도로 인품 역시 뛰어난 것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이 같은 자질과 성품을 지닌 공주임에도 천린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한 측면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실 혼인을 통해 인정된 배우자와의 동침은 작중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이다. 때문에 천린이 설단아와 비교해 동침을 거부하며 경직되어 있는 공주를 끊임없이 의아해하거나 상궁들이 그 행동을 지나치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감정의 교감은 커녕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이를 남편으로 받아들여 평생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있다. 때문에 부덕(婦德)으로 교육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존재인 동시에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점을 표현하는 이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것에 따른 두려움이 여전히 한 편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 <명주기봉>에서 월성공주의 모습은 이를 섬세히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주기봉>은 이 같은 두려움의 감정을 없애고 부부 관계가 자연스러워지는 과정을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 정서적 친밀감의 구축을 통해 보여준다. 천린과 월성공주가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을 갖기까지 천린의 행동은 여러 차례 변화를 보여준다. 강압적인 혼인과 자신을 두려워하는 공주에 대한 불만으로 공주를 핍박하던 천린은 이후 공주를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면서부터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린이 태도를 바꿨다하더라도 천린의 행동이 일방적이었을 때에는 공주와의 관계가 여전히 문제를 띠고 있었다면, 천린과 공주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공주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천린이 행동하면서부터는 공주 역시 천린을 이해하려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

게 갖기시는 바로” <명주기봉> 1권.

난다. 때문에 천린이 공주를 좋아하는 자신의 감정을 확인하고, 공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리는 편지를 쓰거나 독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던 공주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었다더라도 이는 그간 공주를 대하던 태도와는 다른 것이더라도 일방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공주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공주는 동침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 강압적으로 첫 동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천린을 더 두려운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 같은 공주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에 대한 서술이 사라진 자리에 공주와의 관계에서 공주를 배려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하는 천린의 모습이 대신하기 때문이다. 강압적 동침으로 인해 병을 앓는 공주를 간호하면서 천린은 이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공주와 계속 동침을 갖고 싶은 일방적인 마음을 추스르기도 하며, 이때 잉태 되었던 아이를 공주가 사산(死産)하고 또 이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죄책감을 갖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이전과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요구하기 보다는 고통을 함께 겪고 슬픔을 공유하면서 천린을 공주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는데, 이는 2~3년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 재현되면서 천린의 진정성을 잘 드러내준다. 이처럼 <명주기봉>은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친밀감의 구축을 통해 부부 간의 정서적 교감이 갖는 중요성을 드러내준다. 이는 배우자를 일방향이거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심어린 소통을 기반으로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문장편소설에서는 동침을 거부하던 부인들이 남편의 병간호로 인해 마음을 돌려 부부 화합에 이르는 모습이 종종 나타난다. <명주기봉>에서도 월성공주가 천린의 병간호로 마음을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는 다른 작품과는 차이를 띤다. 대개의 경우 남편의 병간호

가 부인의 마음과 관계없이 남편이 병간호를 하면서 정성을 보였다는 모습만으로 화합에 이르고 있다면, <명주기봉>에서는 이처럼 이루어진 치독 사건의 병간호에서는 부부 화합을 이루지 못하지만, 부부 불화의 책임 소지자가 누구이며, 공주의 마음 상태를 고려해 병간호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부부 화합으로 나아가는데 병간호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주기봉>이 천린과 공주를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점은 이 작품의 여성 친연적인 성격과도 맞아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일찍이 선행연구를 통해 이 작품은 결혼한 여성이 친정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야기되는 남편 및 시가와의 심각한 갈등 등에서 여성의 입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방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⁴⁵⁾ 부부일지라도 혼인 초에 여성이 남편에 대해 낯선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지점을 드러낸 것이나, 친밀감이 바탕이 된 동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은 이러한 측면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중요한 요인을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이 작품을 향유하는 이들에게 공감을 제공했으리라 여겨진다. 이는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여성 규훈서나 수신서에 나타난 이상적 부부 관계에 대한 태도와 견주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규훈서나 수신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 설명할 때 세세한 항목들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그 덕목들은 “아내가 비록 남편과 대등하다고 하나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다. 마땅히 예로써 공경하여 섬기되 아버지와 같이 해야 하니, 몸을 낮추고 뜻을 나직이 하여 거짓으로 존대하지 말고, 오로지 순종함을 알아서 감히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⁴⁶⁾와 같이 부부 간의 감정의 교

45) 송성욱(1992), 앞의 논문, 395~397쪽.

46)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15쪽.

감을 나누는 것보다 예를 중심으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명주기봉>에서 천린과 월성공주는 기실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다. 이들은 체격 조건이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天緣)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서로에게 맞지 않는 배우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당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공주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음에 기인한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천린과 함께 있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체격이 어울리지 않는 점과 천린의 일방적인 마음에 의해 이뤄진 동침의 결과로 이들은 현경문의 후계를 이어야 할 태아를 사산(死産)하기까지 한다.⁴⁷⁾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사산을 계기로 회복되어 결국에는 작품 내에서 이상적인 부부로 서로에게 어울린다는 평가를 듣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두 사람의 관계가 전환된 것은 강압적인 동침과 사산에 따른 슬픔을 공유하면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며 정서적인 친밀감을 쌓기 시작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배우자와의 체격 조건이 어울리는 문제는 기실 후천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주기봉>에서도 처음부터 체격 조건이 맞지 않았던 천린과 월성공주의 사이에서는 어렵게 아들 2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체격 조건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가문의 후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 <명주기봉>은 이를 조소저라는 인물을 통해 보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서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부부라는 평가가 천린과 월성공주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천린에게 있어 가장 어울리는 짝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조소저는 현경문이 다남자할 인물이라고

47) 월성공주와 현천린이 사산한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예측했던 것과 딱 맞게 많은 후손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명주기봉>이 여성의 몸에 대해 보여주는 인식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문제를 남긴다. 부부 화합의 조건으로 체격의 조화를 중시하는 것은 <명주기봉>이 가문의 후사를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시선인데, 이것이 곧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이었다면 공주와 천린의 관계에 대해 체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서술을 그토록 반복적으로 제시한 후 이를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으로 바뀌나갈 필요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의 몸을 두고 여타의 국문장편소설에 비해 <명주기봉>이 보다 순결에 대해 강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여겨진다. 월성공주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이라 여기며 천린을 극단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나 강양공주가 혼인을 올린 후에도 동침을 갖기 전에 일부러 앵혈(驚血)을 다시 부여받아야 하는 모습을 설정하는 것은 친밀감의 중요성이나 앵혈이라는 교양 습득 여부와 별도로 순결에 대한 강박적인 시선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4. 결론

이 글은 국문장편소설 <명주기봉>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의 요건과 그 의미를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현경문의 장자인 현천린은 사촌 현응린과 함께 <명주기봉>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로, 서사에서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는 현천린이 겪는 부부 갈등은 이 작품의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이 작품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부의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천린은 3명의 부인과 1명의 첩을 두는데, 이들의 부부 관계 재현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혼인 시점, 동침(同寢) 시기, 성(性)에 대한 태도, 서로에 대한 인식, 주위 사람들의 부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명주기봉>이 이상적인 부부의 조건으로 배우자와의 체격의 어울림과 정서적 친밀감을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가문의 후사를 잇는 점에서 체격의 어울림이 중요하지만 정서적 친밀감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씨양옹쌍린기>연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인 <명주기봉>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꾸준한 향유가 이루어졌으며⁴⁸⁾, 현재 2종의 완질본과 24종의 낙질본이 발견되고 있어 조선후기 널리 향유가 이루어진 작품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들 이본들은 인물의 심리나 감정 서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작품에 대한 향유층의 섬세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이러한 이 글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명주기봉>의 다양한 이본에 나타난 현천린과 그의 부인들의 부부 관계 재현을 좀 더 섬세히 살펴본다면, 이 작품을 향유하던 이들이 <명주기봉>이 보여준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 지녔던 생각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8)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강전섭, 「<연문칙목록>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V, 중앙문화사, 1995;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참고문헌

- <명주기봉>, 고려대 소장본 22권 22책.
<명주기봉>,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24권 24책.
- 강전섭, 「<언문칙목록>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V, 중앙문화사, 1995.
-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26쪽.
소혜왕후 지음,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427쪽.
- 송성욱, 「<명주기봉>에 나타난 규방에 대한 관심, 『고전문학연구』 7, 한국고전문학회, 1992, 378~404쪽.
-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1~368쪽.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3권 1호 통권 38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169~188쪽.
- 양선숙, 「서사적 자아 개념과 그 여성주의적 함축 : 성폭력 트라우마의 극복과 관련하여, 『한국여성철학』 24권, 한국여성철학회, 2015, 81~122쪽.
- 이나라, 「<명주기봉>에 나타난 가족 갈등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71쪽.
- 이영택,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214쪽.
- 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한국학논집』 3,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1975, 557~573쪽.
- 이지하, 「<현씨양옹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93쪽.
- 이지하, 「대하소설 속 친동기간 선악 구도와 그 의미, 『한국문화』 6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339~361쪽.
- 장시광,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전연구』27, 동양고전학회, 2007, 7~37쪽.
-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인문과학논총』 16호,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63~84쪽.
- 정성희, 『조선의 섹슈얼리티: 개정판』, 가람기획, 2009, 1~312쪽.

- 최기숙, 「<현씨양옹쌍린기>에 나타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현경문-주소지’ 부부 관련 서사분석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301~337쪽.
- 최남희, 유정, 「트라우마 내러티브 재구성과 회복효과」,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285~309쪽.
- 최수현, 「<명주기봉> 이본 연구 - 고대본 <명주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569~602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69~121쪽.
- 한길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응서대립담 연구: 여주인공 입장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5호, 한국고소설학회, 2003, 277~315쪽.

ABSTRACT

A Study on the Terms of Couple Harmony Appearing
in <Myeongjugibong>
-Focusing on Hyeon Cheon-rin Couples

Choi, Sue-hyu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consider the awareness of ideal couple appearing in long novels in Korean, and its meaning, focusing on Hyeon Cheon-rin and his wives. Leading this work with Hyeon Ung-rin, Hyeon Cheon-rin had suffered from the serious conflicts between his spouses. One of the major causes was derived from a difference of the awareness about sleeping with. So it can be said that this work investigates the concern about ideal couple relationships in order to consider and shed new light on the conflict patterns between Hyeon Cheon-rin couples and the meanings.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study is to examine the patterns to shed new light on the pattern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Hyeon Cheon-rin and his spouses, above all, and to examine the time Hyeon Cheon-rin married three wives and one concubine and he slept with them, and the attitude for sex as well as the awareness of couple that most people had. Based on it, it is confirmed that emotional intimacy and physical harmony are the important factors of ideal couple relationships.

Key Words Couple Relationships, Sleeping with, Emotional Intimacy, Physical Harmony

논문투고일 : 2016.7.14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확정일 : 2016.8.22